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신형철 문학평론가·조선대 교수

김성훈 감독의 '터널'은 많은 장점을 가진 영화다. 지금 꼭 필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관객에게 들려주기 위해 가장 적합한 화법이 무엇인지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터널에 갇힌 '정수'(하정우)보다도 그의 아내 '세한'(배두나)이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 나에게서는 더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터널 안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닌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터널 안밖의 교통이 모두 그녀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워 보였다. 터널 밖의 교통과 분노에 떠밀려 그녀가 결국 터널 안의 남편을 포기하기로 결단하는 '마지막 방송' 장면을 나는 지금도 떠올리고 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른 의미에서 계속 떠

터널 앞에서

오르는 한 장면이 있다. 35일 만에 구출된 정수가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퇴원해서 아내와 자동차로 귀가하는 장면. '이송'에서 '퇴원'까지 실제로는 긴 시간이 흘렀겠지만 관객들은 불과 몇 분 만에 멀끔해진 정수를 보게 된다. 그 사이 건강해진 정수의 너스레는, 조금 어리둥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했다.

그런데 그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터널을 지나가는 장면을 보여 줄 때 나는 당혹스러웠다. 물론 정수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결국은 통과하는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나는 고개를 젓고 있었다. 저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 읽었다. 정수가 퇴원하는 종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고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장면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는 트라우마의 집요함을 강조 하자는 데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장면이 내게는 오히려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다시 터널로 들어갈 수 있는가. 나라면 다시는 터널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터

널의 시커먼 아가리가 저 멀리 보이는 지점에까지 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평생을 말이다. 내가 아는 한 트라우마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그 장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설명할 능력이 내게는 없고 또 그러기에 적당한 지면도 아닐 것이다. 그저 다음 대목을 한 번 옮겨 적고 싶다. "기억이란 내가 기억하는 당사자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우리가 기억의 주체로 남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압도해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내가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나를 기억한다."(맹정현, '트라우마 이후의 삶', 책담, 2015, 78쪽) 트라우마에 관한 한 나는 '주체'가 아니라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잊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놓아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다."(같은 곳)

한 인간이 어떤 과거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당사자가 아닌 이들은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열심히 상상해야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대상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

그걸 잊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한다. 이제는 정신을 차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고, 이런 말은 지금 대상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체가 될 것을, 심지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는 말이다. 당신의 고통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말은 얼마나 잔인한가. 우리가 그렇게 잔인하다.

며칠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초대를 받아 강연을 했다. 자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수락한 것은, 내가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물러서는 것으로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상처와 위로'에 대해 요즘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말하기 위해 갔다.

강연 중에 "문학은 나태한 정신을 고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내용의 말을 하다가 잠시 주춤했다.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살아 있는 현실인 '고문'을 비유로 사용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그 순간 처음으로 했다. 계속 공부해야 한다. 누군가의 터널 속 어둠의 일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종교칼럼



조방기 신사동성당 주임신부

매일 기록을 갱신하며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더위를 처분한다'는 처서가 지났음에도 더위는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기상 예보에 의하면 지난주에 벌써 더위는 한풀 꺾였어야 하는데 아직도 낮은 뜨겁고 밤은 덥다. 선풍기 없이는 버틸 수 없고, 에어컨 꺼지면 짜증 먼저 나는 날씨가이다. 폭염이 한 달 가량 이어지다 보니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이야기가 술술 나온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저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에 적용된다. 이 요금은 다른 요금과 달리 유일하게 6단계의 누진제가 적용된다. 누진제는 우리나라의 전력이 부족해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여한다는 핑계로 지난 20여년 간 실시돼왔다. 누진제와 더불어 올해처럼

전기요금 누진제와 희년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정부는 다시 핵발전소 건설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가정용과 산업용 전력 소비 비중이 각각 12.9%와 53%로 가정 전력 소비 비중이 현저히 낮다. 이는 OECD의 일반적인 소비형태(산업용 소비 비중과 가정 소비 비중이 각각 30% 초반대로 엇바슷함)와는 다른 모습이다.

더불어 누진제로 전기요금이 올라갈수록 이에 비례해서 전기요금의 3.7%로 징수되는 준조세 성격인 전력기금도 상승한다. 이 기금은 대기업 연구개발비, 민간발전사 민원 처리비용으로 사용되어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라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뉴스도 있었다.

여하튼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6단계의 누진제와 더불어 전력요금까지 추가로 징수되고 가정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저렴하다. 결국 한전은 그 손해를 가정용에 누진제를 적용해서 매꾸고 산업용은 전기를 아끼면 오히려 보상을 받는다.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로는 생물학적으로 기보다 사회적이다. 1995년 7월12일부터 16일 사이 미국 사카고 최고기온은 낮을 때는 34도, 높을 때는 41도였다. 폭염 때문에 사망한 자들은 대부분 도심에 사는 빈곤층 노인이었다. 냉방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있더라도 전기 때문에 더위를 그냥 견뎌야 하며, 있는 창문도 도둑이나 강도 때문에 닫아 놓는 사람이 많았다.

한국 역시 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1인 가구에 속한 빈곤인구의 72%는 60대 이상이고, 2인 가구에 속한 빈곤인구의 68.2%도 60대 이상의 고령자이다. 이제 빈곤, 단독가구는 따로 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주거환경은 더 열악하다. 2010년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보고한 폭염이 서울시 종로구 쪽방촌 독거노인에게 미치는 건강영향 조사에 의하면 주민 20명의 연령은 평균 73.4세, 쪽방의 평균 크기는 1.5평, 절반은 선풍기가 없었고, 3분의 1은 창문조차 없었다. 고령, 질병과 장애, 빈곤, 열악한 주거환경은 이 더위에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 한시적으로 국가가 전기요금 누진율을

낮추고 전기요금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폭염에 의한 사회적 죽음은 계속될 것이다.

성경에는 희년제도가 있다. 이 희년에는 땅과 집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가 해방되며 부채가 면제된다. 이런 사회적 죽음을 막기 위한 희년은 없을까? 가톨릭 교회는 지금 자비의 희년을 보내고 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 희년을 맞아 자비의 얼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비란)말과 행동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로하고, 현대 사회의 새로운 노예살이에 얽매인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자신 안에 갇혀 있어 제대로 보지 못한 이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 존엄성을 빼앗긴 모든 이가 다시 그 존엄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16)."

이 더위가 지나면 또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의가 수그러들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역시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자비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고



이경진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지동설처럼 오늘날 당연한 사실로 여기는 과학이론의 상당수는 발표 당시만 해도 논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비난을 초래했다. 지구의 자전은 갈릴레오의 전 유물처럼 여기지만 그보다 앞서 코페르니쿠스가 자신이 관찰한 행성과 별의 움직임이 이론과 맞지 않는데 의문을 가지면서 우주의 중심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돈다는 가정 아래 증거를 모아 발표한 바 있다. 한동안 논란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도 망원경의 발명과 과학적인 경험의 축적 결과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학기술은 이렇게 상식과 편견에 도전하며 끊임없는 탐험과 실험을 통해 실제적으로 입증되며 진보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기술 또한 마찬가지다. 물리학의 과거이자 미래라고 얘기되는 원자력 관련 기술의 종류는 열거하기 힘들만큼 많고 전문적이다. 그 모든

검증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기술

기술이 술한 시행착오와 오랜 연구, 상용화 과정에서의 검증을 통해 살아남았다. 특히 원자력기술 고도화 시기를 거치면서 사용후핵연료 저장기술 등 원전 사후관리 기술은 1980년대 이후에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일각에서는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된 기술로 반감기 10만 년인 사용후핵연료의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고 상식적인 질문을 제시한다. 언뜻 들으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질문 같지만, 최근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몇 십 년간 축적된 기술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일과고에서 경험하였듯이, 인공지능 기술과 상용화된 증강현실 관련 기술, 그리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등 IT 관련 기술 등의 획기적인 진보를 생각하면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렇게 단순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기술은 크게 습식과 건식으로 나뉜다. 원자로에서 인출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내 또는 외에 저장시설을 지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하기 전의 저장시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영구처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수십 년 동안 세계 각국의 원전에서 운영되면서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실증된 시설이다. 저장방식에 따라 관리기술은 세분화된다. 습식저장

은 말 그대로 사용후핵연료를 수조에 넣어 5년 이상 냉각시키며 방사선과 열을 식히는 방식이다. 반면 건식저장은 물 대신 공기에 의한 자연냉각방식으로서 콘크리트 내부의 금속 저장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사선을 차폐하는 방식이다.

지구촌이 공동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련 기술연구에 주력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습식저장 방식이 주로 채택되었다. 실증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저장기술이 본격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에는 안전성이 높고 확장성과 장기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건식저장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건식저장기술 중 현재 상용화되어 운영하는 기술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콘크리트 및 금속용기 방식, 모듈 방식, 볼트방식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금속용기 방식은 용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확장의 유연성 때문에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및 일본에서 매우 유력한 저장방법으로 선호하고 있는 저장방식이다.

우리나라도 1992년부터 경주 월성원전에서 모듈방식(Concrete Silo)과 용기방식(MACSTOR)으로 건식저장시설을 지금까지 24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어 그 안전성이 검증된 셈이다. 2015년 말에 모듈방식의 저장용량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용기방식은 2019년경에 포

화될 전망이다.

원전 운영 38년 만에 최초로 도출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로드맵에 의해서 2028년 고준위방폐물 부지가 선정되기 이전에 발전소 부지에 건식저장시설을 추가로 지어야 하는 원전은 월성, 한빛, 고리 원전 등 3곳이다. 각 원전지역에서 일제히 건식저장시설 확충 또는 건설에 대한 반대사나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제기되는 의견은 각 원전지역의 환경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상태에 따라 각각각색이다.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 한수원, 지역사회가 마음을 열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최소한 2가지는 분명하다. 첫째로 건식저장시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월성원전에서 24년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이미 정부가 관리 절차법에 명시했듯이, 건식저장시설은 한시적인 핵연료 저장시설일 뿐 법적으로 고준위방폐장과는 완전히 다르며, 일각의 우려처럼 고준위방폐장화 될 수도 없다는 점이다. 건식저장시설과 고준위방폐장시설은 근본적인 개념도 다르고,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요건도 완전히 다르다. 건식저장시설 건립 문제는 고준위방폐장시설 유지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社說

개점휴업 광주국제양궁장 활용 방안 없다

건립비 270억 원이 투입된 남구 주월동 광주 국제양궁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장으로 사용된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체육회 집체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거의 1년 동안,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양궁대회가 열리거나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쓰인 날은 각각 21일과 41일에 불과했다. 이용 인員으로는 1년간 선수 2543명, 전지훈련 117명 등 2660명으로 하루 평균 7명 안팎이다. 양궁장 관리를 맡은 시체육회 측은 지난 4월부터 시민 무료체험 행사를 열고 동호인에게 경기장을 개방했지만 이용객은 지난 5개월간 338명에 그쳤다.

경기장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광주시체육회와 광주양궁협회는 운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광주로 유치했던 '2017년 국가대

표 2차 재야선발전'도 같은 이유로 대한양궁협회 측에 대해 유치 포기 의사를 전달했을 정도다. 광주시는 '국제양궁장 관리는 시체육회에 맡겼다'며 이 같은 사정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광주 국제양궁장의 현실은 수익 사업 등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경기장을 신선했던 데 따른 예견된 결과다. 광주시를 비롯해 시체육회와 광주양궁협회 등은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국제양궁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국제·전국 규모 대회, 동호인 대회를 적극 유치해 경기장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양궁 인구의 저변이 얽어 경기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광주에는 '서항순 양궁장'이 있는 만큼 경기장 용도에 얽매이지 말고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원점에서 활용 방안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도 있다. 열세 270억 원이 투입된 공간을 마냥 놀려서야 되겠는가.

서민 울린 이중 분양, 허술한 제도 보완을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해 가액을 가로철했던 시공사 대표와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중복 계약 확인이 불가능한 제도적 맹점에다, 악덕 건축업자와 고액 수당을 노린 브로커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리면서 서민들의 눈물을 자아낸 사건이다.

광주시구 남성동의 한 오피스텔 중복 분양 사건은 입건자만 100명이 넘는 규모로, 현대 사회의 새로운 노예살이에 얽매인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자신 안에 갇혀 있어 제대로 보지 못한 이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 존엄성을 빼앗긴 모든 이가 다시 그 존엄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16)."

이 더위가 지나면 또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의가 수그러들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역시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자비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또 브로커에게 계약 1건당 통상 앞선료보다 훨씬 많은 300만 원을 주며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중공 시기 입주 가능한 제도적 맹점에다, 악덕 건축업자와 고액 수당을 노린 브로커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리면서 서민들의 눈물을 자아낸 사건이다.

피해자가 늘어난 것은 건물을 완공한 후 중공 검사를 마치고 전에는 계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선(先)계약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행사와 브로커의 유혹에 속았었다가 낭패를 당했다.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 가운데는 전세자금을 날린 사람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힘없는 사람들을 농락한 업자와 사기극에 동조한 이들을 엄벌함과 동시에 최대한 피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 또 건물 준공 전이라도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리우올림픽 골프 경기 4일째인 21일(현지시간) 마지막 18번째 홀, 아프지 않을 리가 없을 왼손으로 퍼터를 친 박인비는 공이 홀로 굴러떨어지자 두 손을 번쩍 들어올렸다. 브라질 현지와의 시차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자정 넘어 1시가 훌쩍 지난 시간이었다.

금메달을 목에 건 박인비는 시상식이 끝난 뒤 "몸에 남은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후련한 듯,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밝힌 그의 모습을 TV로 보면서 문득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달 초 북극권으로 선택한 제주 삼다수마스터스 대회에서 예선 탈락한 뒤의 좌절, "몸이 아프면 후배에게 기회를 줘야지"라는 주변의 압박을 견뎌 내야 했을 그의 마음고생이 떠올랐다. "저도 똑 힘들게 금메달을 따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을 가져다주었는데, 괜히 사람을 의심했다니..."하는 자괴감도 들었다.

시상식이 끝나자 아웃핏 아파트의 불빛들이 하나 둘씩 사라졌다. 창문을 열어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미처 가시지 않은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tv 화면으로 그의 경기를 지켜보며 눈시울 적셨을' 우리 이웃을 생각했다. 박인비를

비롯한 모든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흘렸을 땀과 눈물, 노력과 희생이 아파트 1층 가로등 불빛 속에서 우리 이웃의 고단한 삶과 겹쳐졌다.

올림픽에 나서기 위해 몇 달 전부터 새벽 6시만 골프장까지 나가 하루 종일 훈련을 거듭했던 박인비와, 일 년 열두 달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출근해 미래의 성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고 있는 내 이웃의 모습에 미소를 밝힌 그의 모습을 TV로 보면서 문득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달 초 북극권으로 선택한 제주 삼다수마스터스 대회에서 예선 탈락한 뒤의 좌절, "몸이 아프면 후배에게 기회를 줘야지"라는 주변의 압박을 견뎌 내야 했을 그의 마음고생이 떠올랐다. "저도 똑 힘들게 금메달을 따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을 가져다주었는데, 괜히 사람을 의심했다니..."하는 자괴감도 들었다.

인버처럼 가정과 학교·직장에서 온갖 어려움을 참아 내야 했을 우리 이웃들이 생각났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은 박인비의 번쩍 쳐든 두 팔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읽어 냈을 것이다. 지금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것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며 새로운 꿈을 떠올렸을 것이다.

누가 우리의 영웅인가. 모든 국민에게 새로운 삶의 의지와 희망을 불어넣어 준 선수들, 그리고 힘겨운 삶에 굴하지 않고 새 힘을 얻은 우리 이웃이 바로 진짜 영웅이다. 파이팅 코리아!

/홍희경 정치부장 redplane@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 편집국장 程厚植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 경영지원국 (FAX 222-800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
| 편 집 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 기획관리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
| 정 치 부 220-0632                               | 문화미디어부 220-0664               | 다 지 안 실 220-0536                    |                                |
| 사 회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97                |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                                |
| 사 회 2부 220-0652                              | 사 진 부 220-0693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